

이슈

2

2019년 10월 4·5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제3178호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영화 '엑시트'의 주연 임윤아가 3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기 앞서 레드카펫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운대(부산)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세계적 거장 작품서부터 넷플릭스 작품까지 풍성

MC 정우성·이하늬, 축제의 시작 알려 스타들 레드카펫 등장에 뜨거운 환호성

아시아 최대 규모 영화 축제, 제24회 부산 국제영화제가 3일 개막해 열흘간의 잔치에 돌입했다. 새로운 물결을 이끄는 한국 등 아시아 영화는 물론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과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넷플릭스 작품까지 올해 영화제는 한층 풍성한 상차림으로 관객을 맞는다.

전날부터 남부지역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이 지나간 뒤 이날 낮부터 부산 전역이 청명한 하늘을 되찾은 가운데 영화제는 오후 6시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영상장에서 배우 정우성과 이하늬가 진행한 개막식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앞서 올해 한국영화 흥행작인 '극한직업'의 류승룡·진선규, '기생충'의 조여정, '엑시트'의 조정석·임윤아가 개막식장으로 향하는 레드카펫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3000여 객석에선 환호가 터져 나왔다. 초청작 '종이꽃'의 안성기, '유열의 음악앨범' 정해인, '버티고'의 유태오 등 다채로운 배우들의 행진이 이어졌다.

한국영화 100년을 맞아 배우 김지미는 '김지미를 아시나요' 프로그램을 통해 대표작을 소개하고 전도연 등 후배들과 오픈토크에 나선다. 임권택, 이장호, 정일성 촬영감독 등도 100년사를 대표하는 영화를 두고 관객과 '스페셜 토크'를 진행한다.

'발굴'과 '공감'의 가치를 내세운 올해 영화제 개막작은 '말 도둑들, 시간의 길', 카자흐스탄과 일본의 합작영화로,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유목민 가족이 비극을 딛고 삶을 이어가는 이야기다. 이날 개막작 기자회견에서 공동 연출자인 일본의 리사 타케카 감독은 "가족은 늘 함께 해야 하는 운명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헤쳐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밝혔다.

개막작 상영을 시작으로 영화제는 다채로운 무대를 본격적으로 펼친다. 감독과 배우가 참여하는 '엑시트' '극한직업' '생일' 등 오픈토크, 한국영화의 미래를 가능해볼 '나나 내나' '윤희에게', '초미의 관심사', '야구소년' 등 무대인사도 없이 이어진다.

해운대(부산) | 이혜리 기자 gori1024@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유럽이 극찬한 잘츠부르크 황희찬...리버풀과 UCL 조별리그 2차전 1골·1도움 의미

1 '유럽 최고 수비수' 판 다이크 무장해제

(지난 시즌 UEFA 올해의 선수)



잘츠부르크 황희찬이 3일(한국시간) UCL 조별리그 E조 2차전 리버풀(잉글랜드)전에서 풀타임을 뛰며 1골·1도움으로 맹활약했다. 지난달 18일 헝크(벨기에)와 1차전에서 기록한 1골 2도움 이후 다시 한 번 절정의 기량을 뽐냈다. 득점 직후 왼발을 높이 들며 기뻐하고 있는 황희찬. AP뉴시스



리버풀과의 경기 후 황희찬은 개천절을 맞아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팬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사진 | 황희찬 인스타그램 캡처

- 2 리버풀 홈 무실점 행진에 제동
- 3 UCL '공격포인트 5개' 전체 1위
- 4 잉매체 "판 다이크에 두통 선사"
- 5 UEFA 홈피 "드리블·패스 훌륭"

황희찬(23·잘츠부르크)이 최고의 활약으로 개천절(3일)을 열어젖혔다. 특히 2018~2019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올해의 선수'에 빛나는 수비수 피르힐 판 다이크(리버풀)를 능가하며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

오스트리아 무대에서 뛰는 황희찬은 이날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펼쳐진 리버풀과 2019~2020 UEFA 챔피언스리그(이하 UCL)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1골·1도움을 기록했다. 지난달 18일 헝크(벨기에)와 1차전에서 1골·2도움으로 맹활약을 펼친 데 이어 2차전에서도 강호 리버풀을 상대로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다. 리버풀의 UCL 홈경기 무실점 행진을 5경기에서 멈춰 세운 황희찬의 만화골은 여러모로 의미를 더했다.

이로써 황희찬은 올 시즌 공격포인트를 6골·10도움(정규리그 4골·6도움, 컵대회 1도움, UCL 2골·3도움)으로 늘리며 최고의 시즌을 이어갔다. 특히 UCL에서는 공격포인트 5개(2골·3도움)를 기록하며 전체 1위에 올라갔다.

이번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개막 7연승의 리버풀은 잘츠부르크가 상대하기엔 벅차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황희찬은 주눅 들지 않고 과감한 돌파와 드리블을 앞세워 멀티 공격포인트를 따내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0-3으로 뒤진 전반 39분, 리버풀 수비의 핵심인 판 다이크를 완전히 속이며 기록한 골은 경기의 백미였다. 영국 매체 스포츠비이블은 "황희찬이 세계 최고 중앙수비수 중 하나인 판 다이크에 두통을 안겨줬다"고 전했다. 황희찬은 후반 11분에도 미나미노 타쿠미의 추가골을 도운 정확한 크로스를 선보였다.

잘츠부르크는 3-3에서 무함마드 살라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3-4로 패했지만 황희찬의 활약만큼은 모두들 인정하고 있다. UEFA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황희찬이 패배에서도 빛났다. 넘치는 에너지에서 훌륭한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를 보여줬다"고 칭찬했다. 경기 후 황희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결과는 좋지 않지만 팀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팬들의 큰 응원에 감사드린다. 늦은 시간에도 많이 응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을 남겼다. 1승1패(승점 3)의 잘츠부르크는 24일 나폴리와 조별리그 3차전을 갖는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손가락 욕' 김비오 징계, 해외서도 주목

"김비오 손가락 욕으로 직업 잃어" "3년 자격정지 징계 조금 과하다" 외신·골프 매체들, 유사 사례 비교

김비오(29·호반건설)의 손가락 욕 사태를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AP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과 골프채널, 골프위크 등 미국 골프 전문매체들은 앞 다퉈 김비오의 경기 도중 손가락 욕설 행위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의 3년 자격정지 징계 소식을 다루면서 큰 관심을 나타냈다.

AP통신은 2일(한국시간) "김비오가 손가락 욕으로 직업을 잃었다. 당사자는 징계가 나오기 전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여러 외신들도 김비오의 욕설 행위가 담긴 동영상과 함께 관련 뉴스를 타진했다.

주요 골프 전문매체들은 "2002년 US오픈에서 한 팬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한 세르히오 가르시아(39·스페인)는 공식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비교될 만한 사례를 내놓았다. 가르시아 외에도 몇몇 선수들이 경기 도중 과한 욕설을 했지만, 3년 자격정지와 같은 처벌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

는 한국 선수들의 입장이 담긴 기사도 나왔다. 골프위크는 3일 '골프 여제' 박인비(31·KB금융그룹)를 비롯해 지은희(33·한화큐셀), 김효주(24·롯데)와 이번 일과 관련된 인터뷰를 게재했다.

박인비는 "서양이 동양보다 조금 더 관대한 측면이 있는 듯하다. 미국에서는 가혹한 징계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정당한 처벌이었다는 분위기다. 미국과 한국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나는 그 중간 즈음 위치하고 있다"고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은희는 "개인적으로는 3년 자격정지가 조금은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KPGA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스폰서들이 KPGA와 계속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효주는 "선수가 드라이버를 바닥으로 내려찍지 않았다더라면 징계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KPGA는 2일 양희부 회장의 성명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양 회장은 "이번 사태는 선수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KPGA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선수와 갤러리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골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어서-스미스, 영국인 첫 여자육상 200m 우승

(도하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110m 허들 홀러웨이 첫 금
남자 해머던지기 파이데크 4연패

다나 아셔-스미스(24)가 영국인 사상 최초로 여자육상 200m 챔피언이 됐다.

어서-스미스는 3일 카타르 도하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200m 결선에서 21초88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각각 22초22와 22초51을 기록한 브리타니 브라운(24·미국)과 무징가 캄분지(27·스위스)를 따돌렸다.

자메이카 부모 출신 아셔-스미스는 199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아셔-스미스는 2015년 영국 여자선수로는 최초로 100m 10초대(10초99)를 기록했다. 같은 해에는 200m 자국 신기록(22초07)까지 작성하면서 기대주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여자 100m 결선에서 자국 신기록인 10초83을 찍어 영국 여자 선수 최초로 이 종목 은메달을 따낸 그는 이번 200m 우승으로 영국을 넘어 유럽을 대표하는 스타가 됐다.

어서-스미스는 "주변에서 '너는 200m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 일어났다"면서 "이곳까지 응원하러 와주시고 어머니 앞에서 금메달을 따내 더욱 기쁘다"고 벅찬 소감을 밝혔다.

같은 날 열린 남자 110m 허들 결선에선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오마르 매클라우드(25·자메이카)가 9번째 허들에서 넘어지는 틈을 타 그랜트 홀러웨이(22·미국)가 13초10으로 생애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처음 출전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이번을 일으킨 홀러웨이는 "내가 우승을 할 수 있을지는 나조차도 의문이었지만 끝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값진 결과를 얻었다"고 기쁨을 나타냈다.

남자 해머던지기에선 파울 파이데크(30·폴란드)가 80m50을 던져 78m19를 보낸 쿠엔틴 비고(27·프랑스)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파이데크는 이 종목 4연패와 함께 남자 해머던지기 사상 최다 연속 우승 기록을 세웠다.

고봉준 기자



다나 아셔-스미스가 3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200m 결선에서 1위를 차지한 뒤 국기를 펼쳐 보이며 활하게 웃고 있다. 도하(카타르) | 신화뉴스